



[뉴스]
증권사
주식 소수점 거래
MZ세대 유입 기대
02

ESG규제 채찍질 과도한 기업 부담 중소는 생존 위기

규제 팬데믹 <中> ESG 4법

국회 계류 ESG 관련법안 97개 지원정책 보다 규제·처벌 무게
中企, ESG 자금 조달부터 난항
사업적 불이익에 수출 불발까지

재계가 일찌감치 ESG를 도입하며 코로나19 극복에도 큰 공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오히려 ESG 규제안을 내밀며 재계 목을 조르고 나섰다.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 피해가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은 경영 안정성을 빼길 위기에 놓였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된 ESG 관련 법안은 97개에 달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항도 244개나 있었다.

정부가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기후 변화'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를 신설하고 올해말까지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계획으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이어 액화수소 관련 실증 특례를 승인하는 등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도 35%에서 4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대기업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만큼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내빈들이 SK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이미 자체적으로 '넷제로' 경영을 대폭 확대한데다가, 주력 사업을 수소 등 새로운 분야로 선회하고 있는 덕분에 오히려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적지 않다.

문제는 중소기업이다. 현실적으로 친환경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탄소 중립 목표를 포함한 ESG 성과를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생존하기 어렵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지금 조달부터 문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나수미 연구위원이 발간한 'ESG 확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지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장 기업은 이미 지난해 말 이후로 해외 M&A에서 ESG 리포트를 요구받는 등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었으며, 투자업계뿐 아니라 금융권에서도 ESG 수준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사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B2B 기업은 대기업이 공급망에 ESG 위험 관리를 적용함에 따라 자칫 생태계에서 배제될 수 있다. B2C 기업 역시 윤리적 소비 환경 확대로 도태될 수 있고, 수출 기업은 이미 ESG 평가로 수출이 불발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해결책으로는 '당근'이 제시됐다.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ESG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ESG 경영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금융을 공급하는 등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정부 방침은 '채찍질'에 무게를 둔 모습이다. ESG 관련 계류 법안 조항 중 대부분인 196개가 규제와 처벌 내용을 담고 있었다. 중소기업에서는 손대기 어려운 환경관련에서도 조항 47개 중 규제와 처벌이 17개나 됐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상생을 결단하기도 어렵게 됐다. 최근 발의된 이른바 'ESG 4법'에 대한 개정안 때문이다. 해당 법안은 국민연금법, 국가재정법, 조달 사업법, 공공기관운영법 등으로, 전경련과 경총,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및 코스닥협회 등 경제 5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현대차·제철, 강성노조 발목 생산성 악화

현대차 '팰리세이드' 증산 반대
현대제철 불법점거로 일손 부족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계열사인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이 강성노조의 압박으로 생산성 악화에 따른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양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를 딛고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노조의 요구에 부딛혀 발목이 잡힌 상태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의 북미 판매 상승에도 생산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노조의 무단점거 장기화로 공장 가동에 막구름이 끼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회의 조합원들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무단점거가 24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현대제철 자회사가 아닌 본사 직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제철 측은 이미 자회사 설립을 통해 이들 고용 계획을 끝냈기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또 다시 1000명이 넘는 대규모 불법 집회 개최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이번 역시 지난달 25일 집회와 같이 자회사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현대제철이 지난 7월 초 자회사를 설립해 비정규직을 채용하겠단 밝힌 것이 발단이 됐다. 현대제철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들 모두를 100% 자회사 현대ITC 등 3개 회사에 고용하겠다고 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비정규직 해결에 현대제철이 직접 나선 것에 대해 호평이 이어졌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자회사 고용에 대해 '간접고용에 불과하다'며 본사 직고용을 요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급기야 지난달 23일 당진제철

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했다. 이날로 점거기간은 24일로 늘어났다. 이 과정에서 4차례 불법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과격한 행위도 동반됐다.

통제센터는 제철소 모든 공장의 생산운영 및 안전, 환경, 에너지, 물류, 정비, 품질, 재경 등 종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근무하는 직원은 약 500명이다. 비정규직 지회가 점거하자 당시 통제센터에 근무중이던 직원들은 기습한 협력지회 조합원들의 실력행사로 인해 급히 밀려났다. 현대제철은 현재 해당 건물에 대해 시설물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 점거와 농성이 장기화되자 현대제철은 지난 10일 현대ITC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로 했다.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력들을 대체할 경력직도 함께 채용하기로 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인도네시아 현지 시간 기준)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 산업 단지에서 열린 배터리셀 합작공장 기공식 행사 중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왼쪽 화면) 대통령이 착공 버튼을 누르고 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가운데) 회장, 현대차그룹 김경(원쪽) 사장, 현대모비스 조성환 사장(앞줄 오른쪽)이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도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뉴스

현대차그룹·LG엔솔, 인니 배터리셀 합작공장 착공

글로벌 전기차 공략 거점… 2024년 양산

연간 전기차 배터리 15만대분 생산
현대차·기아 생산 차량에 탑재 예정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아세안 전기차 시장 공략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배터리셀 합작공장 건립을 본격화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카라왕 지역의 신 산업 단지(KNIC: Karawang New Industry City) 내 합작공장 부지에서 배터리셀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은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을 비롯해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 바흐릴라 하달리아 투자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현

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LG에너지솔루션 김종현 사장, 현대모비스 조성환 사장 등 양 그룹 경영진들이 온라인 화상 연결을 통해 참석했다.

이날 착공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셀 합작공장은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총 33만 m²의 부지에 건립되며, 2024년 상반기 중 배터리셀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합작공장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15만대분 이상에 달하는 연간 1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전기차 시장 확대를 감안해 생산능력을 30기가와트시(GWh)까지 늘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다.

합작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신기술을 적용, 고용량 니켈(N)과 코발트(C), 망간(M)에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낮춰줄 수 있는 알루미늄(A)을 추가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배터리셀이다. 현대차그룹은 오랜 기간 축적한 완성차와 각종 부품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전체 배터리 시스템 및 완성차까지 연계될 수 있는 통합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최고 수준의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에 힘을 보탠다.

합작공장의 배터리셀은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의 E-GMP가 적용된 전용 전기차를 비롯해 향후 개발될 다양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1 수소모빌리티+쇼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내빈들이 SK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靑 "기모란 배우자 '매매' 땅,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

▲ 김기현, 조성은 겨냥 "윤지오가 새로 나타났다… 사과 없는 與도 반복" /사진 뉴시스

▲ 與, 정세균 '무효표' 유효투표수서 제외키로… 이재명 51.41%→53.70%

▲ 與, 카카오 상생안에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제대로 반성해야" 비판도



▲ 국민의힘 "박지원, 조폭 같은 공갈협박 발언해"

/사진 뉴시스

▲ 오경미 대법관 후보, '박원순 피해호소인' 표현에 "낫설었다"